

2018년 2월 21일, 표선면 하천리 하천리노인복지회관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.
송영선(남, 1943생, 표선면 하천리)

- 줄거리: 밤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캄캄해지면 그순새가 나타나는데,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살고 움직이면 죽는다.

[조사자] 헛게. 그순새 나타난 이야기 엊우과?

[제보자] 옛날에는 다 나타낫주게. 우리 시대는 본 건 잘 엊어. 들은 거밖에.

[조사자] 어디서 봇덴마씨?

[제보자] 도체비라는 것은 빛이 엊어. 달 모양처럼 생겼어.

그순새렌 헌 게 잊어. 그순새라는 것은 밤에 걷다가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야.

그게 나타나믄 가만히 잊인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고 헛어.

그순새렌 헌 게 뭐냐 하믄 걷다는 뜻이라. 초지가 오래되면 걷어. 그걸 보고
그순새렌 하는 거 닳아.

[조사자] 가만히 잊어야 뛰어마씀?

[제보자] 어.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잊어사 뛰어.

- 핵심어: 그순새(귀신), 밤, 도체비(도깨비), 달